

책으로 허무는 세대간 단절의 벽

가족간 대화공백 메운다...일부에선 중복출판도 극성

“돌이켜보면 부자간에 속마음을 툭 터놓고 대화 한번 한 것 같지 않구나. 무엇이 그렇게 바쁘게 우리의 삶을 몰아쳤는지, 아니면 우리의 대화를 막는 무슨 두터운 벽이 우리 사이에 있었는지 알 수 없구나. ...늘 그렇듯이 부자간의 대화는 자칫하면 일방적인 것이 되기 쉽고, 논지에서 벗어나기도 쉽고, 아니면 평행선을 달리다가 끝나기 쉽다.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아직 제대로 된 대화문화를 갖지 못한 것 같다.”(「대학에 들어간 아들에게」中)

참회의 고백처럼 들리는 이 말은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띄운 글의 일부다. 현대사회의 세대간, 가족간 대화의 단절을 반증이라도 하듯 이를 좁혀보려는 시도의 한 현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띄우는 글을 모은 책들이 잇달아 출간, 독자들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앞서 인용한 「대학에 들어간 아들에게」(집현전)를 비롯, 「내 아들이 너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을유문화사) 「딸들이 행복하여라」(동림문) 「사랑하는 딸에게 엄마가」(창우사) 「엄마 아빠 그건 싫어요」(현암사) 「아버지 우리 아버지」(한림문화사) 등 30여권에 이르는 책들이 바로 세대간의 공백을 메우는 시도들이다.

이들은 크게 부모가 아들에게 주는 글과 딸에게 주는 글,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띄우는 글 등으로 구체적으로 대상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같은 최근의 현상에 대해 한 관계자는 “부모·자녀 세대간에 갭이 커지고 의사단절의 골이 깊어지면서 이를 대화로 잇고 싶다는 욕구가 베스트셀러라는 반응으로 나타난 것 같다”고 진단한다.

우선, 아들에게 주는 부모의 글로 이광규(서울대 인류학과) 교수의 「대학...」이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에서 놓여나 스스로 선택하고 개척해나가야 할 세계에 발 딛게 된 아들에 대한 염려와 조언이라면, 「아빠가 아주 어렸을 적에」(성하)는 작가 윤희복씨가 황폐한 아스팔트문화 속에서 자라나는 2세들에게 자신이 어렸을 적의 삶과 문화를 들려주는 동화모음으로 아들세대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겨 있다. 또 「대학은 가서 뭐하니」(청노루)는 교회전도사인 엄마 박경신씨가 입시교육에 시달리는 아들에게 띄우는 격려의 글.

「사랑하는 아빠가」(김영사)는 AP통신 기자였던 지은이 페트리코 코넬리가 입양한 두 아들과 대화할 시간이 없어 출근하면서 써놓고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주는 글을 모은 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간 그림과 편지들의 모음. 87년 초판 이후 울초까지 23판을 거듭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글'들은 잘 팔리지 않는다는 속설을 깨고 붐을 조성한 책이기도 하다. 또한 18세기 영국의 정치가이며 외교관이었던 필립 체스터필드가 외국에 근무할 때 아들에게 보낸 편지 「내 아들이 너는 인생을...」은 89년 2월 발간된 이래 30만부가 넘는 판매량을 보였다.

반면, 「내 딸들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케이 스펀넬, 명문당) 「시집가는 딸에게」(이상현, 청림) 「내 딸들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다오」(후자오토 모시카스, 명문당) 「딸들이 행복하여라」(조일호, 동림문) 등은 딸에게 주는 부모들의 조언.

이중 딸이 남성위주의 문화 속에서 종속된 이차적 삶이 아닌 '당당한 한 개인'으로 역사적·사회적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조일호씨의 「딸들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여성은 이래야 된다'는 식의 지나치게 남성위주의 시각에서 씌어진 책들. 번역서 중 미국 레브론 화장품 회사의 기획부장이었던 케시 스펀넬이 두 딸에게 보내는 글 「사랑하는 딸에게...」는 직업을 가진 어머니로서 겪어야만 했던 남다른 체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들이어서, 아버지들에 의해 씌어진 것과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한편, 「엄마 아빠 그건 싫어요」(현암사) 「아버지, 우리 아버지」(대교문화) 「아빠 힘내세요」(한림문화사) 등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보내는 '희망사항' 모음. 특히 「아버지, 우리...」는 아이들의 눈에 비친 아버지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 아버지에게 주는 주제가 있는 산문들을 비롯 국민학생 1천여명을 대상으로 아버지에게 대한 기대와 바람을 모았다.

그리고 둘 때부터 20년 동안 옥중 무기수인 아버지에게 보낸 오수강씨의 편지모음 「창살가의 햇빛」(햇빛출판사)은 특수한 경우이긴

하나 아버지에게 대한 굳건한 믿음과 사랑을 담고 있어 한집에 살고는 있으나 '존경'이 부재한 요즘 부모·자녀 관계에 시사하는 바 크다.

부모·자녀간에 대화를 대신하고 있는 이들 책들은 가정교육이 거의 없다시피한 현실에서

그 기능의 일부를 담당한다는 긍정적인 측면 외에도 마땅히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출판상의 문제점도 있다. 이런 류의 책이 잘 팔린다 싶자, 이미 출판이 된 책을 다른 출판사가 겹치기로 졸속 번역, 비슷한 제목을 달아 내놓는 것이 그 좋은 예. 을유문화사의 한 관계자는 “「내 아들이...」의 경우 7~8군데에서 다시 번역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목, 심지어 표지디자인까지 베끼는 한심한 일도 있었다”고 말한다.

이같은 출판현상에 대해 서울대 최흥기(사회학과) 교수는 “가족간이 그만큼 단절돼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좋은 책이 나와 부모가 미처 못한 역할의 일부를 해주기도 하겠으나 부모·자녀간의 틈을 채워주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된다”며, “부모들이 먼저 각성, 대화의 벽을 터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정혜옥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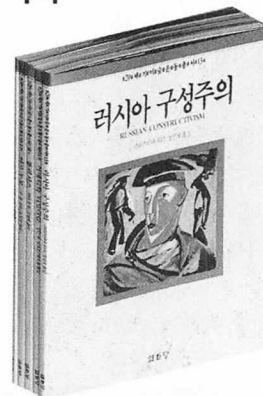
금세기 아방가르드 미술운동의 요체

'20세기 미술운동총서' 다섯권 새로 나와

금세기 아방가르드 미술운동의 요체를 정리, 소개하기 위해 3년전부터 선보여 왔던 '20세기 미술운동총서' (열화당刊) 다섯권이 새로 출간돼 현재까지 20권을 채웠다.

「러시아구성주의」(크리스티나 로더 / 정진국), 「아메리카리얼리즘」(밀턴 브라운 / 권오룡), 「플럭서스」(르네 블록 / 전경희), 「아르누보」(장 폴 뷔용 / 윤철규), 「모더니즘 이후의 미학」(피터 플러 / 김채현) 등이 이번엔 나온 책들로, 풍부한 원색도판 및 자료사진의 선정, 그리고 각각의 미술운동의 핵심을 파헤친 간명하면서도 깊이있는 논문들이 주목을 끈다.

이중에서도 특히 「러시아구성주의」 「아메리카리얼리즘」 「플럭서스」 등은 단행본으로는 국내최초로 소개되는 것들로, 「러시아구성주의」는 사회주의리얼리즘과 짝을 이루면서 미술사상 매우 비중있게 평가되고 있고, 「아메리카리얼리즘」은 미국작가들이 미국사회를 비판한 미술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또한 「플럭서스」의 경우는 한국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이 활약한 미술의 장이라는



점에서도 각별한 주목을 끈다.

다음은 동총서의 기간목록.

큐비즘(존 골딩) 팝아트(에드워드 루시-스미드) 표현주의(노버트 린튼) 추상표현주의(찰스 해리슨) 사회주의리얼리즘(존 버거) 키네틱아트(조지 릭키) 신즉물주의와 제3제국의 회화(쿠틀 메트켄 외) 신구상회화(장 루이 프라델) 누보레알리즘(다니엘 아바디) 미래파(지오반니 리스타) 초현실주의(로베르 르네) 다다-쥘리히·뉴욕(미셸 사누이에) 자유구상(카트린느 스트라쎈) 야수파(사라 휘트필드) 포토리얼리즘(루이스 마이클).